



학회소식

한국헌법학회(회장 문재완 교수)

한국헌법학회(회장 문재완 교수)는 오는 2019년 한국헌법학자대회를 『현대 입헌주의의 발전과 한국 헌법학의 과제』를 주제로 삼아 2019년 6월 7일(금) 한국외국어대학에서 개최한다. 이날 발표될 주제는 다음과 같다.

- 헌법과 정치개혁 · 헌법과 체제변화
- 헌법과 사법개혁
- 사회변화와 기본권의 새로운 전개
- 권력구조 일반 · 기본권 일반론
- 기본권 개별론
- 헌법이론과 헌법방법론 일반

한국비교공법학회(회장 한귀현 교수)

한국비교공법학회(회장 한귀현 교수)는 『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』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 2019. 4. 26.(금) 13:00 ~ 4. 27.(토)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극장에서 한국법제연구원, 순천대학교 범민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. 이날 발표될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.

- 남북한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국가 체계에 관한 서론적 연구: 최 유 박사 (한국법제연구원)

-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헌법적 검토- 인권 보장의 실질적 조건과 한계를 중심으로 -: 홍종현 박사(감사연구원)
-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: 김소연 교수(육군사관학교)
- 통일과정에서의 기본권적 문제: 황동혁 박사(부산대)
-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: 박훈민 박사(한국법제연구원)
- 4대 경험합의서의 공법적 검토: 조영승 박사(부산대)
-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정책적 고찰 :한명진 박사(고려대)
- 남북한 지방 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(우호)결연과 법적 문제: 황선훈 박사(서울시립대)

유럽헌법학회(회장 전학선 교수)

유럽헌법학회(회장 전학선 교수)는 지난 『문화재 관리와 입법과제』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9년 4월 20일(토) 13:30~18:00 국민대학교 법학관 106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.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.

- 우리나라 문화재관리와 입법과제: 김민섭 교수 (국민대학교)
- 문화유산의 입법과제 - 프랑스의 접근 방식-권채리 박사 (한국법제연구원)

- 독일 문화재 관리와 입법: 계인국 교수 (고려대)
- 영국 문화재 관리에 관한 법체계 : 김연식 교수 (성신여대)

- 민간투자사업에서의 투명성 확보방안 : 계인국 교수 (고려대학교)
- 민간도로사업시행자의 공용사용의 법적 문제: 윤성철 변호사(법학박사, 법무법인 정진)

한국토지공법학회(회장 석종현 교수)

한국토지공법학회(회장 석종현 교수) 오는 2019년 6월 8일(토요일) 13:30-18:00 건국대학교 법학관에서 『민간투자사업의 토지공법상 문제』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국법제연구원/한국토지공법학회/한국지방자치법학회/한국입법정책학회/전국대법학연구소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.

이날 발표될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.

- 민간투자사업의 관리통제방안 : - 사업종료후 관리기관 설정방안을 포함하여 : 황지혜 박사(한국외국어대학교)

한국행정법학회(회장 박정훈 교수)

한국행정법학회(회장 박정훈 교수)는 지난 3월 29일 14:00~18:30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『독일 행정법학의 최근 경향과 변화』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.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.

- 독일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의 이론과 실제: 김병기 교수(중대 법전원)
- 독일 행정법절차법의 최신 경향: 강현호 교수(성대 법전원)
- 독일 공법상 계약의 주요 쟁점: 서보국 교수(충남대 법전원)
-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및 주요쟁점: 이재훈 부연구위원(법제연구원)

동정

신현운 교수(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/상사법)

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현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제10대 회장으로 선임했다. 경제법·공정거래법 전문가인 신 회장은 연세대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, 공정거래위원회

카르텔자문위원회 위원장·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·한국경제법학회 회장·한국광고법학회 회장·연세대학교 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했다. 연세대학교는 '그동안 공정거래위 고위직 출신이 맡아 오던 이 단체 회장직에 민간영역 전문가가 선임된 것은 처음'이라고 밝혔다.